



보도시점 2024. 9. 26.(목요일) 배포 2024. 9. 26.(목요일)

‘2024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에 장혜영(시)·조성국(소설)·이명란(수필·수기)

- 재외동포청, 26회 수상작 발표…시, 소설, 수필·수기 3개 부문 13명 선정

- 2024년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에 시 부문 장혜영(아랍 에미리트)의 ‘모시’, 단편소설 부문 조성국(미국)의 ‘낙원에 있으리라’, 수필·수기 부문 이명란(뉴질랜드)의 ‘이웃집 여자 린다’가 각각 선정됐다.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26일 이들 각 부문 대상 수상작과 함께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 총 13편을 선정해 발표했다.
- 발표는 재외동포청(oka.go.kr)·코리안넷(korean.net)·소통24(sotong.go.kr)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됐다.
- 수상자 13명에게는 총 3천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고 수상작은 작품집 ‘재외동포 문학의 창’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12월 중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또한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10월 4일)’에서는 단편소설 부문 대상 수상자(조성국)가 수상 작품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 심사는 문태준, 정호승(이상 시 부문), 구효서, 은희경(이상 단편소설 부문), 박상우, 이경자(이상 수필·수기 부문) 등 한국 문학계를 대표하는 문인과 전문위원이 맡아 진행했다.
-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재외동포들이 높은 수준의 작품을 제출해 심사가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번 문학상 공모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 단편소설, 수필 · 수기 3개 부문에서 이뤄졌고, 전 세계 53개국에서 504명이 1천304편의 작품을 응모했다.

○ 특히 올해 수상 부문과 상금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다 접수작이 84% 증가해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학 창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재외동포 문학상은 재외 한인 문학도들의 작가 등용문으로 자리 매김해 왔으며 ‘카디에프 문학상’, ‘쿠프린 문학상’ 등을 수상한 고려인 작가 박미하일 등 다수의 문인을 배출했다.

□ 이상덕 청장은 “26년의 긴 역사를 가진 ‘재외동포 문학상’은 꾸준히 동포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는 전 세계에서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접수돼 재외동포 문학 저변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이어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재외동포와 모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장을 꾸준히 넓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제26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 목록 1부.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책임자	서기관	이명재	032-585-3207
	동포교육문화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김은혜	032-585-321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연번	부문	수상 내역	성명	국가	작품명
1	시	대상	장혜영	아랍 에미리트	모시
2		우수상	정순용	영국	미역 뿌리
3		가작	강인수	인도네시아	나의 마을이 불타고 있다
4			김선호	미국	그 집
5	단편소설	대상	조성국	미국	낙원에 있으리라
6		우수상	이준상	영국	팔마 데 마요르카 (Palma de Mallorca)
7		가작	박혜자	미국	말복 씨의 여름
8			이준호	캐나다	고 웨스트
9	수필·수기	대상	이명란	뉴질랜드	이웃집 여자 린다
10		우수상	이지영	요르단	중동에서 다섯 번째 전쟁을
11		가작	김병천	미국	나의 버킷 리스트 제1호
12			빈센트고	뉴질랜드	가까운 천국
13			안동환	호주	별은 나를 꿈꾸게 하고